

여성과학기술인회 오세화 초대회장

“여성과학기술자 활약 대단”

친목차원 넘어 대덕단지 활력소 기여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단절돼 있는 연구자들 사이의 벽을 트고, 나아가 대덕연구단지의 활력을 되찾는 데 이바지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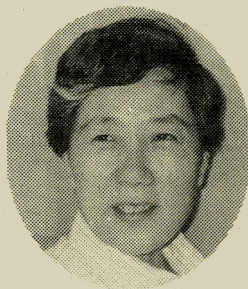
20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뽑힌 오세화(사진·50·한국화학연구소 염료염색가공연구실) 박사는 이 모임이 분야를 넘는 협력이 필수적인 요즘의 연구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립총회 이후의 반응은.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좋다. 격려전화가 빗발치고 여대생들로부터 강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89년부터 연구단지 안 여성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여성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로움을 덜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대화를 트는 데 여성이 주도적 구실을 할 것이라 판단했다.

-여성 과학자들의 강점은.

=섬세함과 인내심이다. 바로 여성들이 억눌려 오면서 얻은 자질이다. 그런데 요즘의 과학은 지구력 있게 파고드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의 활약이 점점 눈에 띈다.

현장체험 바탕 정책대안 모색

과학기술인 모임 결성 잇따라

연구개발 현장을 뛰는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현장 연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부 주도로 결정돼 온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로써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0·40대 '중견' 중심

지난 22일 창립된 대덕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과학기술자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대전과 대덕연구단에 위치한 충남대·한남대·목원대 등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에너지기술연구소·원자력연구소·유전공학연구소·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한화그룹중앙연구소 등 기업연구소의 30·40대 중견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이 모임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이 정부 주도로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립되고 집행돼 왔다"고 지적하고 "정치·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 살아숨쉬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유성관광호텔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열린 이 연구회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김용준 고려대 교수(화학공학)는 "몇 명의 체육선수를 집중적으로 길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과학기술에 대한 단기적 효과

'대덕연구회'·'여성과학기술회'등 정부주도 정책결정에 문제제기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덕과학기술정책연구회 창립기념 조찬간담회.

만을 채근해 온 것이 지난 30여년 동안 군사문화시대 위정자들의 과학기술정책이었다"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나아가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이해가 없이는 결코 과학기술문화는 창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4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한 이 모임은 △과학기술문화 △과학기술정책 △산·학·연 △환경 등 네 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김상돈 교수 등 6명의 운영위원이 모임을 대표하고 있다. 창립기념강연회에 이은 사업으로 △정

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사기' 토론회(10월7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11월중) △'신경제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분석' 토론회(12월중) △계간 <과학기술정책연구> 발간 등이 계획돼 있다.

한편 지난 20일 창립총회를 가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오세화)는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주목적으로 내세운 친목단체이지만,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과학대중화 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대중화에 기여

여성 과학기술자들은 우리나라 연구원의 약 10%인 2천여명을 헤아리지만 이제까지 조직적 활동을 벌인 적은 없었다.

창립회원 2백명으로 출범한 이 모임은 곧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일하는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생활과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등을 소개한 책과 어려운 과학지식을 쉽게 풀이한 단행본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의료·건축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80년대 말부터는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운동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번처럼 박사급 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일로, 지난 5월1일 창립된 전문 과학기술자들 중심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회(회장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신호탄이 됐다.

조홍섭 기자